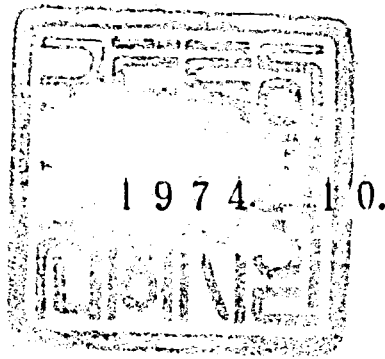


韓國統一問題와 他分斷 國家統一
問題와의 比較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国土統一院 1974年度 下半期 학술용역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提出합니다.

1974年 10月 30日

研究機關

朝鮮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研究委員

責任者 崔 聖 俊

委員 趙 基 洙

目 次

一. 韓国統一問題	3
1. 統一問題의 性格	3
2. 統一問題의 原則	4
3. 韓国統一問題와 周邊情勢	5
4. 四大強國의 對韓國統一政策	8
가. 美國의 對韓國統一政策	9
나. 日本의 對韓國統一政策	11
다. 中共의 對韓國統一政策	13
라. 蘇聯의 對韓國統一政策	16
5. 南北統一의 現況과 將來	18
6. 平和統一의 構想	20
二. 他分斷國家의 統一問題	21
1. 獨逸의 統一問題	23
2. 越南의 統一問題	37
3. 中國의 統一問題	42
4. 分斷國家의 共通類型과 그 實情	45
三. 南北統一을 위한 對備	48
1. 南北統一을 위한 外交的 課題	48

2. 10月維新体制와 統一을 위한 對備	50
3. 韓國統一政策의 確立과 實踐	52
四. 結 論	54

一. 韓國統一問題

1. 統一問題의 性格

우리나라 國土統一問題를 생각할때 그 背景이나 歷史的의 由來의 觀察은 重要하나 分斷이 엄연한 現實이고 보면 이 現實을 現實대로 認識하는 政治科學者의 立場에서 概念把握이 第一 重要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統一을 民主的인 民族國家의 完成으로 規定하고 統一이 이루어지는 過程에서 民族統合과 同質性의 回復이라는 平和的의 段階를 構想하고 있다. 武力統一을 포기하고 平和的統一을 絶對 目標로 할때 우선 緊張解消에서 協商할 수 있는 基礎作業을 第一 重要視하게 된다. 統一概念의 段階性은 領土收復 또는 單純한 政治 國家의 合併을 超越해서 實現 可能性을 前提로한 合理的 方法이라 할 수 있다. 統一問題의 性格은 우선 이 概念에서 定立되어야 하며 어디까지나 政策方向이 平和的이어야 하며 政治現實을 中心으로 하는 原則을 追求해야 한다.

그러나 北韓은 全國의 共產主義化라는 原則이 統一原則에 그대로 適用되기 때문에 統一概念은 北韓을 共產革命의 基地로 하고 決定的 時期에 共產革命化를 南韓까지 擴張한다는 것이며 「合作」 또는 「統一戰線」이라는 戰術的 手段形態를 취하고 있다.

北韓의 統一概念은 共產化 統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革命的이고 政治的이고 獨善的인 類型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概念構成의 根本的 差異에서 由來된다. 따라서 統一의 實現이 거의 不可能하고

非現實的인 方法으로만 対処하려고 하는 北韓의 對話態度가 여기에 서 기인되는 것이다.

우리의 概念은 平和的이고 段階的이며 現國際社會의 潮流에 合致되는 外交交渉의 現實性을 土台로 하고 있으나 北韓의 概念은 革命的 侵略的 方法으로 南韓社會의 混亂과 國民烽起를 期待하는 方法이다. 우리는 民族의 正義와 人類本來의 使命達成이란 歷史的必然性을 哲學으로 하고 있으나 北韓은 共產主義達成이란 統治權獲得에 哲學을 두고 있다.

이 相反된 統一問題의 性格은 現實的으로 加一層 困難性을 보여 주고 있으나 事必歸正이라는 政治社會의 大原則을 信奉할때 險하고도 긴 路程이 統一의 앞을 가리고 있으나 總和로써 世界國際政治의 潮流에 부합할때 統一은 이루어진다는 信念이 政策樹立의 根因이 되어야 한다.

2. 統一問題의 原則

韓國統一은 平和的이어야 하며 自由民主主義的이어야 한다.

武力을 통한 統一은 統一이란 기쁨 以上の 民族의 一大悲劇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배격해야 하고 共產主義統一이란 우리가 信奉하는 自由를 抹殺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격하는 것이다. 戰爭을 통한 共產主義統一이라면 우리는 絶對로 받아 들일 수도 없고 오히려 分斷의 現狀대로 滿足해야 한다.

韓國統一은 段階的 方法과 時日을 요하는 原則을 挾해야 한다.

國家分斷은 戰爭處理의 一方法으로서 戰勝國間에 간단히 이루어졌을 지언정 일단 分斷된 國家의 統一이란 너무나 相異한 異質的要素로 對立된 國家形態의 實存體와의 統合이기 때문에 이 異質的要素의 瓦解 또는 理解에는 반드시 政治的時間이 必要한것이 現實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相互間緊張과 誤解는 政治的 軍事的 社會的差異에서 由來하기 때문에 이 和合에는 역시 政治的 軍事的 社會的異質性은 同質化하는 時間이 必要하나 더구나 同族抹殺이란 戰爭을 遂行한 集團과의 統一에는 自然히 緊張解消의 時間과 意識的노력이 必要하다.

軍事侵犯을 防止하기 위한 不可侵協定の 締結 相互交流 政治的協商을 통한 終局的統一이 生覺할 수 있는 可能的 方法이다.

統一은 民族自身の 힘으로 自主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4大強國은 큰 影響力을 갖추고 있는것이 現實이나 우리가 統一을 이룩할때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바라는 方法으로 우리 意思에 合致되는 形態의 統一을 願하며 이것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努力해야 한다.

以上の 原則이 固守되고 貫徹될때 統一은 우리의 悲願이요 歷史的 使命이요 우리의 未來像의 具現이 된다고 할 수 있다.

3. 韓國統一問題와 周邊情勢

韓國分斷이 第2次世界大戰處理의 副產物이고 보면 分斷初부터 이미 國際政治의 副產物이었으며 國際政治가 存続하는 限 韓國統一

의 國際性을 度外視할 수 없다. 韓國統一은 自主的으로 分斷兩國家間에 解決해야 할 國內政治의 性格을 가진 問題이면서도 同時에 國際政治의 解決을 併行시키는 問題이고 國際政治的이면서도 또 強烈한 國內的의 性格을 띤 問題임이 큰 特色일뿐더러 이 國內政治의 利害關係와 國際政治의 利害關係가 相互作用하고 있다. 38線이 美蘇兩戰勝國의 一方的 強要였다는 것을 記憶해야 한다. 또 分斷이 現在까지 繼續되고 있는것은 韓半島의 內的要因이 基因하기도 했지만 國際的의 要因도 많이 基因되고 있다. 南韓에 大韓民國이 樹立된 것도 美國의 韓國에 대한 關心과 UN의 決議를 背景으로 理解해야 할것이며 共產政權이 樹立된것도 蘇聯戰略의 一部라고 할 수 있다.

6.25 動亂도 蘇聯自體의 軍事的後援과 共產主義政策擴大의 一部로써 強行된것이다. UN軍의 出動으로 南侵을 防止하고 休戰線이나 다 유지하게 된것은 UN이란 國際機構가 南北關係의 過去와 現在에 걸쳐 깊이 介入하고 있음을 立証해 주고 있다.

美國은 韓國의 自由守護 民主主義의 發展 經濟發展을 위하여 莫大한 人的 物的投資를 해왔고 韓國의 共產化를 막고 民主的安定과 發展을 成就할 수 있도록 支援해 주었으며 韓國을 友邦으로 維持하는것이 그들의 國家利益에 合致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軍事的으로는 韓美防衛條約을 통해서 韓國의 安保를 維持하고 있다.

이것과 같이 蘇聯과 中共은 北韓에 對해서 共產理想國家를 建設하고 美國의 東南亞細亞進出을 저지하기 爲해서 軍事的으로 經濟的

으로 絶對的 援助를 하고 있으며 韓半島分斷은 南北으로 美蘇 2大強國의 政策試驗場과 같은 狀況에 이르렀기 때문에 美蘇의 利害關係에 따라 韓半島의 分斷은 一進一退하고 있다. 中共 역시 國內政治를 整備하고 國際的地位가 向上됨에 따라 北韓에 대한 政策은 蘇聯의 그것과는 약간 差異가 없는것도 아니나 大同小異한 共產政策의 遂行에 全力을 다하고 있다.

南北統一에 대한 國際性を 無視할 수 없다는 것은 위에서 仔細히 說明했다. 이러한 基本的 國際性を 內包하면서도 南北韓 自体의 問題라는 点에서 南北統一은 一層 미묘하고도 豫測하기 어려운 政治現像을 露出하고 있음은 容易하게 理解할 수 있다.

國際社會는 主權平等思想이 그 基本概念을 이루고 있다. 事實은 깊은 利害關係를 表面에 登場 안시키고 意識的으로 서로 度外視한 척하면서도 南北統一은 韓民族自体의 問題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對話協商을 통한 解決이 바람직하다는 主張을 앞세우고 있다. 따라서 南北統一에 對한 周邊情勢는 極히 安定되어 있는것 처럼 보인다. 四大強國의 政策이 모두 南北統一은 自体的解決問題라고 하면서 國際政治社會에서 크게 取扱되는 것을 기피하는 것처럼 보인다. 特히 UN 總會서 韓國問題 討議는 그러하다.

事實은 周邊情勢가 表面上으로는 平隱한것 처럼 보이나 其實은 相互利害關係가 内部的으로 熱火와 같은 競争 또는 關心속에서 極力 自國便의 利益을 위해서 躍動하고 있음을 우리는 認識하고 南北統一의 問題는 이 國際性を 充分히 考慮해서 立案해야 한다.

周辺情勢에서 특히 關係 4 大國 즉 日本・美國・蘇聯・中共의 對韓半島政策을 면밀히 正視해서 그 政策의 實體를 理解해야 한다.

4. 四大強國의 對韓國統一政策

四大強國의 對韓半島政策은 韓國統一을 바라는 것 처럼 천명하고 있으나 其實은 韓半島의 統一을 希求하지 않고 現狀維持를 바라고 있다는 共通點을 發見할 수 있다. 南北統一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民主主義體制로 統一이 不可能할 때 또는 共產主義體制로 統一이 不可能할 때 次善的인 國家利益을 내세워 現分斷狀態維持를 바라고 있음이 그 真意라는 것을 알 수 있다. 韓國統一은 國際社會의 理想으로 表面上으로는 바람직하다는 名分을 主張宣布하지만 急激한 勢力變化를 두려워하고 現狀의 維持를 希望하고 自體的인 問題라고 해서 可能한限 國際舞臺에서 激된 政治的 風波를 일으킨 것 보다는 다음날의 政治的 宿題로 넘기려고 하는 真意가 分明히 드러나고 있다.

韓半島의 分斷은 우리 自意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國際社會에서 強大國의 政治的 利害關係로 成立된 不幸한 事實이니 이 解決도 當爲의 關係強大國들의 責任下에 UN에서 解決되어야 한다. 民族自體的 統一解決은 이 國際間의 關心과 解決의 실마리가 보일 때 同時에 解決되는 것이요 決코 南北韓當局者의 努力과 關心만으로는 統一이 絶對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斷言하고 싶다.

따라서 統一에 대한 周辺情勢나 4大國의 對韓政策의 규면과 같

이 U N에서 票對決로 國際社會의 與論을 決定的으로 우리에게 有利하게 引導하고 國際與論과 國際平和의 正義性에 立脚해서 南北統一問題를 眞實하게 다루어야 할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4大國의 對韓半島政策을 研究하고 여기에 對処하는 準備工作이 必要하다.

가. 美國의 對韓國統一政策

美國의 對韓國統一政策은 事實上 우리에게 가장 關心거리이며 事實 國際社會에 미치는 影響도 至大하다.

第2次世界大戰後 現在까지 共同의 利害關係를 追求해온 盟邦이라 密接한 國交의 유지는 共產主義侵略으로부터 自由民主主義를 守護하려는 使命意識이 強하게 作用하고 또 戰略的 地政學的 重要性때문에 重要視해왔다.

美國은 事實上 韓國政府樹立의 後見人的 役割을 담당했고 6.25 動亂때는 U N軍의 기치아래라고 하지만 主力戰鬪國家로써 大韓民國의 危機를 救出해주고 그 後도 軍事的 經濟的 社會的安定을 위해 全力을 다하고 있다.

韓國의 地政學的位置은 日本의 進出을 견제하고 駐韓美軍은 中蘇紛爭에서 中共의 對蘇軍事的 견제력을 自然發生的으로 維持케 하고 있다. 또한 日本과 東南亞市場을 고려할때 이 地域에 接近해 있는 韓國의 立地的條件은 美國의 重要한 經濟的 前進基地의 役割을 할 수 있으므로 美國의 産業進出의 重要한 基地라고 할 수 있다. 美國의 對韓投資의 增大는 바로 이것을 證明하는 것이다.

다음에는 美國의 安保와 關係되는 問題로써 韓半島가 赤化될 때 東
南亞細亞 東北亞細亞의 赤化를 促進시키고 日本의 安保는 直接的인
威脅을 받게 될 것이며 美國의 太平洋政策에 重大한 支障을 招來하
게 된다. 美國政府는 對韓外交政策을 이점에 合致시켜서 共同步調
를 取하도록 要求할 것이다. 中蘇를 비롯한 共產國家들과의 關係改
善을 漸次的으로 권유할 것이며 彈力性있는 對北韓政策을 追求하여
北韓과의 對話를 통한 緊張緩和 特히 不可侵條約締結 등 根本적인
政策變化를 要求하고 있다. 美國의 平和共存理論의 實踐 對蘇改善
政策 中共과의 和解政策 越南戰 中東戰解決 그리고 닉슨독트린의
實踐과 國內政治問題優先解決 등 美國의 政策變化를 透視할 때 南北統
一到에 대한 政策은 始終一貫 緊張緩和와 7.4 共同聲明의 實踐 對話
를 통한 接近을 조용히 또 注意깊게 바라보는 것이 對韓國統一政
策의 全部이다. 더구나 共產黨과의 마찰을 解消시키기 위해서 UN
司令部解体 美軍撤収는 一旦 好意的反映을 土台로 해서 慎重히 考慮
할 것으로 추측된다.

美國은 注意깊게 北韓과의 接觸을 희망하고 있다. 東南亞細亞
特히 日本과 韓國과의 關係를 考慮해서 極히 注意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對話를 통한 南北統一 平和的方法에 의한 統一의
達成을 間接적으로 도우기 위해 北韓과의 外交的說得을 分明히 願
하고 있다. 美國의 對韓經濟政策은 韓國의 自由經濟體制를 갖추고
美國經濟에 公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國防費도 韓國自力으
로 부담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美國의 財政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積極的으로 貿易収支均衡을 要求하고 韓國의 풍부한 勞動力을 利用하고 經濟安定이 政治安定 政治安定이 統一段階에서 더욱 有利한 立場에 선다는 計算下에서 모든 對韓外交政策이 樹立되고 이 外交政策이 間接적으로 南北統一政策에 影響을 미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나. 日本의 對韓國 統一政策

2次世界大戰에 敗北한 日本은 美蘇의 戰後處理政策에 따라 韓半島는 포기하고 對美-辺倒의 外交政策으로 經濟復興만을 目的으로 해왔으며 共產侵略이 韓國서 일어나자 結果적으로 日本經濟復興에 發動機的役割을 하였고 韓國에 對해서는 比較的 온건한 外交政策을 써왔다. 戰敗國인 日本은 결국 共產主義國家 때문에 復興하게 되고 美蘇의 冷戰 對立時期에 교묘히 經濟大國으로 發展하게 되었다. 韓國統一에 對해서는 完全單一國家로써 統一보다는 現狀維持를 바라고 있는 底意를 교묘히 外交적으로 은폐해가면서 國際潮流에 편승해서 外交大國으로 發展하려고 하는 好機에 到達한것이 바로 現在日本의 外交政策樹立의 基本哲學을 이루고 있다. 이점은 共產圈에 대해서도 同一하며 北韓과의 等距離外交를 追求하는 것도 여기 理由가 있으며 強大한 經濟力을 中心으로 外交적으로 勢力을 擴張하고 可能하면 亞細亞에서 過去의 宿願이었던 所謂 「大東亞共榮圈」의 再現을 꿈꾸고 있다.

戰後 韓國이 日本과 交渉하기 始作한것은 6.25 動亂이 進行되고

있을때 美國의 앞선으로 開催된 韓日豫備會談에서 始作된다.

韓日關係가 本格的으로 展開되기 始作한것은 1965年 韓國이 韓半島의 唯一合法政府라는 精神을 基礎로 해서 韓日修交條約이 締結되어서 부터이다. 이때부터 日本은 韓國의 合法性을 認定하고 U N에서 韓國을 支持하는 態度를 堅持해 왔다. 特히 韓國에 대한 補償形式으로 始作된 經濟技術協力이 增大하고 韓日間 親善關係가 一時的이나마 樹立되었다. 그러나 南北統一關係에 대해서는 功利的政策을 漸次 表面化하기 始作했다. 南北分斷狀態가 長時日繼續될것을 알고있는 日本은 注意깊게 韓國에 對해서 經濟的進出을 도모하고 韓日經濟에 큰 比重을 차지하는 立場에 이르자 政治的으로는 南北韓 對等政策을 노출시켰다. 最初에는 野黨과 言論을 表面에 進出시키고 日本政府는 關係없는 것처럼 起然해오다가 最近에 와서는 北韓과 對等視하는 外交政策을 積極的으로 露出시키고 結果的으로 南北韓分斷狀態를 現在대로 持續케 하고 經濟的支配를 南北韓에 同時에 適用하고 所謂 「分割政策」에서 由來되는 政治的 經濟的利得을 独占하고 中共의 進出에 對備할 뿐더러 亞細亞에서 強大國行勢를 하면서 東으로 美國 西로 歐羅巴를 견제하면서 國際社會에서 不動의 政治的位置를 노리는 外交政策을 構想하고 있는것이 너무나 分明하다.

日本外交의 二重性格은 南北關係에서 如實히 反映되었다. 友邦國 台灣을 度外視하고 中共과의 國交樹立 北韓과의 政經分離原則適用의 主張 對北韓經濟進出등이 이 모든 事情을 證明해주고 있다.

国際社会에서 日本이 노리는 戰略을 위에서 仔細히 說明했으며 이것은 新帝國主義外交政策의 類型에 屬하니 우리는 이점을 미리 理解하고 日本의 對韓國統一政策을 認識할 必要가 있다.

日本外交의 戰略은 美國의 從屬外交에서 脫皮하고 世界政治에 同等하게 參與하여 對蘇 對中에서 特別히 同等한 位置에서 可能하면 自由主義대 共產主義의 名譽로운 調整者로써 過去 伯林會議때 新興 獨逸의 비스 마크가 空想하던 外交的立場을 取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南北統一政策에는 日本은 警戒해야 할 存在일뿐이지 協助의 存在는 現在로써 바라볼 수 없다는 점을 分明히 認識해야 한다.

過去 韓國과 맺고 있던 特殊關係를 一般關係로 轉換시키고 日本이 追求하는 對北韓關係를 서서히 擴大할것이고 南北韓對等關係에 까지 나가서 韓國과 政治的 흥정을 삼으려고 할것이며 韓半島가 日本의 安保와 直結된다는 思想을 漸次 버리고 赤化南下를 防止하려는 완충地帶로 利用할것이나 終局에는 統一된 韓國이 日本存在에 바람직 하지 못하다는 政策으로 나갈것이 分明하다.

다. 中共의 對韓國統一政策

中共의 對韓國統一政策은 北韓에 對한 政策과 南韓에 對한 政策으로 区分된다. 그러나 全体的으로는 外交의 政策과 地政學的의 政策과 同時에 考慮되어 왔으며 中共의 安全과 利益만을 위한 政策으로 一貫되어 왔다.

元來 韓國은 自古로 特殊한 地政學的의 與件으로 因해서 強大國들의 力學關係를 銳敏하게 反映하고 있는 要衝地이다. 韓半島에 接近하고 있는 中共으로서는 그들의 安僞問題와 關聯하여 韓半島에서 造成되는 強大國들의 利害關係를 가장 深刻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中共이 建國初期에 國內의으로 어려웠던 國內的의 與件에도 不拘하고 韓國戰에 介入한것은 韓半島가 갖는 重要性이 얼마나 重要한가를 明白히 해주고 있다. 中共은 韓半島가 共產主義單一體制로 統一된 것이 가장 바람직 슌러 일이나 次善的으로는 美國의 軍事的進出을 가로막는 縮衡地帶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實際로 是 美中和解로써 美中關係가 急速히 改善되므로써 美國의 對韓公約이 弱化되고 相對的으로 北韓의 美軍撤収主張이 점점 더욱 世界의 與論에 호소하게 되고 韓半島에 대한 協調와 妥協의 길이 되었다는 變化를 볼 수가 있다. 韓國戰爭當時만도 蘇聯과 日本을 潛在的 競爭者로 認識하고 있었으나 當時는 蘇聯勢力이 強大하고 日本은 競爭의 對象이 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韓半島를 둘러싼 關係가 分明히 相互牽制的인 關係로 變했다. 다시말해서 日本의 強大化는 中共에게는 하나의 큰 關心事가 아닐 수 없으며 日本과의 協力은 中蘇의 紛爭激化에서 中共이 有利한 立場에 설 수 있고 日本의 軍國主義化를 防止한다는 一石二鳥의 外交政策이라고 할 수 있다.

中共의 對韓政策에서 나타난 對蘇關係의 局面에서 보면 中共은

우선 蘇聯과 他國家 或은 中共의 周辺國家들과의 協力을 除去하는 데 力點을 두고 있다. 中國이 美國과 關係改善을 決心한데에는 對蘇關係에서 強化된 立場에 對해서 그렇고 하는데 그 本意가 있는 것이다. 또한 蘇聯이 對中共包圍戰略으로 積極推進하고 있는 아시아集團安全保障構想에 關心을 刺激시키고 있는 中共은 東南亞細亞進出의 樞紐點이 되고 있는 韓半島에 勢力을 擴張하도록 方官한다는 것은 困難한 일이며 韓國戰爭以後에 中共의 對北韓政策도 北韓에 對한 蘇聯의 影響力을 除去하려는데 있었다.

그러나 닉슨독트린宣言以後 日本의 國際地位向上과 美國의 太平洋地域에서의 勢力後退는 日本의 軍備強化로 美國役割을 代行케 할 一聯의 變化에 中共은 最大의 神經을 쓰고 있는 形勢이다.

따라서 中共은 全韓半島가 共產化되어 中共과 呼吸을 같이 할 수 있는 體制의 出現을 希求하고 있으나 四大強國의 對韓利害關係로 그것이 實現不可能할때는 中共의 安保에 一대威脅을 주는 現狀 變化보다는 現狀의 固守가 中共의 利益에 一致된다는 點을 考慮해서 韓國統一에 對해서는 原則적으로 贊成을 表明하고 있으나 實은 가장 消極적으로 조심스럽게 그 方向을 注視하고 있는 實情이다.

따라서 우리는 6.23 原則에 따라 中共과도 大坦한 修交方針을 樹立하여 韓國統一政策의 正當性을 注入시키고 間接적으로 北韓政策의 實現不可能과 非合理的이란 點을 說得시키는데 가장 強한 影響力을 奏할 수 있는 中共의 政治的立場을 充分히 利用하는 것이 正當한 일이라 하겠다.

라. 蘇聯의 對韓國統一政策

蘇聯의 對韓國統一政策은 中共보다 더 積極的인 面을 보이고 있다. 中共과의 對決에서 더욱 有利한 立場을 考慮한 政策을 取하고 있다.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은 歷史的인 面과 역시 地理的條件에서 同時에 考察할 必要가 있다.

南下 政策을 基調로한 世界赤化를 위한 戰略의 一環으로서 共產體制化支援政策이 고 나아가서는 軍事戰略上으로 韓半島를 對아시아基地化하고 美國進出의 牽制地帶로써 利用하려고 한다. 이와같은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은 過去와 같이 未來에도 그대로 維持되리라 生覺된다. 그러나 이런 政策遂行過程에서 더욱 分明히 나타나고 있는 것은 流動性 伸縮性을 보이므로써 元來의 對아시아政策과 中共과의 紛爭에서 同時에 最大의 國家利益을 얻으려고 하는것이 特徵이다.

蘇聯의 南下政策은 過去 알타會議에서의 戰後處理問題에서 韓半島를 占領赤化하려는 意圖를 나타낸바 있으며 8.15直後 北韓의 共產化만에 滿足치 않고 武力統一을 試圖한 韓國戰爭에서 露骨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美軍을 中心으로 한 UN軍의 派兵으로 敗色이 짙어지자 休戰을 提議하고 一旦南韓赤化野慾은 挫折되었던 것이다. 그後 蘇聯의 平和共存理論은 共產主義國家群의 分裂 國際政治의 多元化 中蘇紛爭의 激化등으로 共產改革理論만이 國家利益을 增進케 하는 理論은 못되고 實利的인 理論을 基礎로 해서

漸次的인 進出方法을 取하게 되었다. 後進地域 特別 亞細亞地域에서 民族解放鬪爭에 對한 支援은 自國利益을 危殆롭게 하면서까지 武力對決을 할 必要가 없다는 變化된 現實土台의 政策으로 轉換하게 되었다.

이런 意味에서 共產革命鬪爭에 對한 支援과 平和共存理論面에는 分明히 兩立될 수 없는 理論上 矛盾이 存在한다. 이런 理論矛盾의 回避策의 하나로 나타난것이 브레즈네프의 아시아集團安全保障構想이다.

이 構想은 中共의 孤立化 美國勢力進出의 防止 등으로 蘇聯의 勢力擴大에 窮極의 目的을 두고 있다. 이 構想實現에 現狀을 그대로 認定하고 많은 接近方法을 活用하고 있다. 對韓統一政策에 對한 蘇聯의 政策도 當然히 이 理論에서 案出되기 때문에 分斷現狀을 一旦現狀대로 固定시키고 最大力點을 中共關係에서의 勝利에 두고 있다. 北韓의 對南韓政策을 表面上으로는 支持하고 있으나 積極的이 아니고 南韓의 6.23 宣言에 好意的反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런 政治的着想에 基因되는 것이다. 韓半島가 統一되어 蘇聯에 密着될 可能性이 없을바에야 分斷된 韓半島의 持續을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蘇聯은 앞으로 中蘇紛爭이 完全히 解消되지 않는 以上 北韓을 自己便에 우선 從前대로 密着시키기 위해서 國際的代弁者의 役割을 계속할것 같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中蘇紛爭을 念頭에둔 措置인 만큼 우리는 우리方針대로 一貫해서 主張할때 蘇聯의 對韓政策은 統一政策實現過程에서 그리 큰 支障이나 決定的難關

은 豫想되지 않는다.

美国이 조심스럽게 北韓과의 關係를 改善할때 그만큼 蘇聯의 對 南韓接近도 이루어 지므로써 韓蘇關係改善이 漸次的으로 成就되리라 生覺된다.

5. 南北統一의 現況과 將來

韓國의 南北統一은 兩分斷國이 다 같이 民族至上成命으로 하고 統治의 最強的目標을 國家統一에 두고 있으나 그 現況은 至極히 對立的이고 큰 困難을 惹起하고 있기 때문에 統一의 將來도 至極히 悲觀的인것이 事實이다. 政治目標은 內的變化와 外的變化에 따라 目標의 變更이 일어나는 것이 事實이기 때문에 現在로써 統一不可能論이나 統一을 포기하고 現狀態固定化를 主張할 必要는 없으나 統一을 貫徹하는데 거의 想像하기 어려운 政治的難關이 있는것은 事實이다. 南北統一을 阻害하는 要因은 大体로 세가지로 分類할 수 있다.

하나 韓國周邊強大國들의 政治的 軍事的 利害關係에서 實際로 統一을 妨害하는 國際情勢요 또 하나는 순수히 北韓側의 共產主義的 統一方法의 固守이나 閉鎖的이고 革命理論으로 南韓解放이 可能하다는 고집이요 또 하나는 南韓側의 統一에 대한 方法의 主張에서 相對的으로 일어나는 政治現象의 流動性 때문이다. 周邊強大國의 利害關係는 이미 仔細히 說明했으나 自國의 利益만을 計算한 外交政策貫徹에서 相互間 非協調的이나 國際和解의 潮流에 편승해서

表面上으로는 韓國統一을 自體的으로 對話를 通해서 達成하기를 願하고 있는 것처럼 宣傳하고 있으나 大體的으로 分斷된 現狀態의 維持를 바라고 적어도 韓國統一問題에서 惹起되는 論爭에는 超然하려고 하는 狀態에 있다.

다음으로 北韓側의 統一에 대한 基本的 構想이다. 南韓의 合法性을 全然 無視하고 共產革命理論만을 適用해서 失地를 回復한다는 侵略方針에 一貫하기 때문에 實質的인 政府의 存在를 認定하지 않고 分裂된 國家部分을 回收한다는 方針아래 緊張緩和 可能的 交流부터 라는 方針은 一考의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단정한 一方的 方法의 固守때문에 平和定着을 土台로한 段階的方法은 全然 生覺하지 않고 共產體制化를 至上目標로 하고 있기 때문에 實際에 있어서는 統一을 願한다는 것은 北韓統治의 理想을 표방한것 처럼 宣傳하고 있으나 實은 現狀固守로 內的團結을 도모하고 所謂 決定的 時期에 侵攻해서 힘으로 南韓을 解放시킨다는 方針때문에 統一은 不可能하며 不可能한 統一政策을 固守하는 北韓과의 對決이 가장 큰 統一의 障礙要因이요 統一不可能論의 根柢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南韓의 國內事情이다. 統一의 갈망을 위한 體制의 確立을 誤解하는 사람에 대한 國論善導策의 米숙이다. 統一의 實現은 不可能에 가까운 狀態이라고 하나 民族의 使命으로 單一化가 더 큰 發展과 國家的飛躍에 이바지 한다고 確信하면 統一達成體制를 完備하고 이것은 個人이나 어느 政黨의 政權統治의 偽裝的手段이나 政

治技術이 아니고 愛國心과 民族의 百年之大計를 透視하는 體制라는 것을 더욱 強烈히 認識시키고 國民總和체제의 必要性說明에서 더욱 前進해서 實踐으로 國民이 協調할 수 있는 國家的체제의 確立이 重要하다.

統一을 지향하는 國家的體制完備에 지해하는 要因 特히 腐敗一掃를 斷行하는 內的整備가 切實히 要求된다. 이러한 統一에 대한 困難한 原因이 國際적으로 또는 内部的으로 併存하고 있으나 統一의 將來는 事實은 樂觀的이라는데 注意할 必要가 있다.

그 理由는 統一이 兩分斷國에 대해서 다같이 目標가 되고 있다는 點이고 또하나는 國際情勢가 平和共存으로 흐르고 있으며 UN 憲章精神俱現이 世界政治의 目標가 되고 있으며 共產國家群도 開放의 共產理論을 挾하고 武力統治보다는 協力統治로 轉換하고 있기 때문이다. 韓國統一도 艱難하고 긴 課程과 試鍊을 豫想하나 北韓의 閉鎖性이 漸進적으로 解消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不可避한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統一의 將來가 悲觀的이라고 해도 政治技術의 發揮 또는 國民善導라는 立場에서는 樂觀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點이 또 至極히 重要하다. 政治理想의 俱現에서 困難이 豫想된다해도 이것을 樂觀적으로 보는것이 國民勇氣의 源泉이요 國民希求를 達成시킬 수 있는 契機이기 때문에 樂觀的인 분위기에서 思考를 出發시켜야 한다.

6. 平和統一의 構想

人類歷史에서 國家統一은 여러 가지 形態로 이루어졌다. 和合에 의한 國家統一是 없고 武力에 의한 領土的征服의 形式이 그 大多數였으며 一民族이 部分的으로 王侯國家로 併立된 것을 中央集權的單一國家로 統一된 例도 있다. 그러나 第二次世界大戰以後 東西陣營의 思想的對立으로써 國土가 兩斷된 分斷國으로써 統一을 達成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東西間冷戰이 激化된 時期에는 武力統一이 統一方法으로 生覺된 때도 있었으나 實地로 武力으로써 分斷國家가 統一된 例도 없고 또 武力으로써 統一된다고 生覺하는 사람은 極端主義的共產革命夢想家를 除外하고는 하나도 없다. 1950年の 北韓의 南侵은 武力에 의하여 韓半島全體를 共產化統一하기 위한 事例이었다. 그러나 共產側企圖는 U N 憲章精神의 實踐과 侵略에 대한 集團安全保障이란 새로운 國際政治原則에 따라서 自由陣營의 參戰으로 沮止되고 U N 軍의 38線以北으로 反擊作戰의 擴大로 統一의 展望이 보였으나 中共軍의 介入으로 目的을 達成치 못했다.

U N 軍의 38線以北進擊도 결국 武力으로 分斷을 解消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如實히 證明해 주었다. 다시 말해서 理由야 어쨌든 武力으로써 分斷國統一是 現代國際政治理論에서는 不可能하다는 것을 實証해주는 좋은 例라고 할 수 있다. 또 힘의 力學的作用으로 政治目的을 達成하는 것이 現代國際政治에 逆行하는 것이고 多邊化한 國際關係에서 帝國主義的手法이 民主主義에 逆行하는 것은 分明히 實証해주는 近代社會에서 平和的 또 協力的 關係에서 政治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政治技術의 案出은 없을 것인가

平和的方法으로 公平한 國際기구를 通해서 國際正義와 平等을 土
대로한 輿論을 背景으로 해서 多數가 最大利益을 圖謀하는 方法이
國內政治에서나 國際政治에서 가장 바람직한 方法일것이다. 共產主
義者들은 革命理論을 平和적으로 達成한다고 主張한다. 革命의 一
方的施行은 平和이고 이것에 對抗하는 要素除去는 平和的作用이지
所謂 自由障營에서 말하는 暴力的作用이 아니라고 高집한다. 不幸
히도 民主主義國家에서는 思想的으로 分離되어 있는 分斷國家의 平和
的統一을 達成하기 위한 体系的理論整備가 없고 따라서 平和的統合
方法을 時急한 問題로 取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最近에 이르
러 東西間冷戰이 解氷되고 平和共存의 理論이 公開的으로 容認되면
서 東西間에 造成되는 緊張緩和 和解 또는 協力の 論理를 分斷國
의 平和的政治統合에 適用하는 試圖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第一段階는 直接的對決關係 第二段階는 競爭의 併行關係 第三段階
는 制限된 協力關係 마지막으로 広範圍한 協力關係를 主張하고 南
北韓의 極端의 體制差異에도 不拘하고 平和적으로 統一하기 위해서는
이 4段階方法의 適用을 主張한 사람도 있다.

東西關係의 解氷的過程에서 이 理論은 實證되지 못한 하나의 假
說에 지나지 않으나 南北韓關係를 冷靜히 考察해볼때 平和統一을
위한 理論的基礎를 理解할만도 하다. 오늘날 南北韓과 같이 思想
的對立 體制의 差異로 인한 緊張狀態뿐만 아니라 6.25 戰亂과 같
은 엄청난 民族相殘의 慘事를 經驗하고 아직도 南侵의 空想을 버
리지 못하고 一方的革命理論의 適用이 可能하다고만 信奉하는 北韓

側과 國家統一을 論할때에는 平和定着이 最優先해야 할것이다. 平和定着에는 南北韓相互間平和設定에 대한 保障이 先行 되어야 하고 또 國際的으로 이것을 保障하는 기구確立이 生겨야 한다. 이러한 平和가 定着될때 相互間에 統一에 對한 念願이 具體化될 分위기를 造成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主張하는 平和定着 制限된 交流 擴大된 交流 經濟發展에 相互參與 그리고 終局的으로 政治協商의 平和的段階가 案出된다. 왜냐하면 政治的의 行爲의 歸一이나 政治關係의 調整은 이것에 接하는 사람의 心理作用이 基本이 되므로 利益을 共同으로 追求한다는 心理的理解가 先行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政治的試圖 또 그 目的을 達成하기가 없기 때문이다. 勿論 70年代 韓半島周邊情勢가 武力에 依한 現狀打破를 希望하지 않고 따라서 武力對決의 可能性이 增加된 경우 統一보다는 分斷의 現狀固定化를 強要할 國際關係가 發展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또 하나는 U N의 活動이 韓半島統一에 對해서 強力한 平和統一의 勸告가 없고 U N 體面維持 즉 平和維持란 極히 原則的인 線에서 맴돌고 있었다는 點이다. 따라서 韓國統一問題에서 힘에 依한 積極性은 結論的으로 韓半島統一을 妨害하고 있다는 點이다. 적어도 結果的으로 現狀固守를 바라고 있다는 點이다. 힘에 對抗하기 위해서는 相當量의 힘을 保有하므로써 平和를 維持할 수 있기 때문에 北韓의 武力使用方策이 滅失되지 않는 限 南韓의 軍備維持와 美軍駐屯은 國家自衛上 너무나 當然한 初步的常識이다. 北韓이 平和를 定着시키고 協商을 통한 平和共存을 理解하거나 적어도 이것을 要求

하는 世界政治의 大道에 순응하는 方策으로 나오면 韓國軍增強 美軍撤収問題는 自然히 解決된다. 힘의 相對가 없는데 武力을 維持하는 것은 政治的作亂이요 이러한 作亂은 民主主義社會에 容納도 안되거니와 世界政治의 常道에서 離脫되고 國際孤立을 自招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따라서 南北相互間 平和定着에 우선 合意한다면 平和協商은 다음 段階로 自然히 到來하기 때문이다. 平和協定은 南韓을 度外視하고 國家的雙務協定에 따라 義務를 수행하고 있는 美軍撤収만 主張한다면 이것은 韓國의 合法性을 度外視한 一方的政治理念에서 出發하기 때문에 國家統合을 바라는 길이 아니고 國家征服을 의미하는 것이니 主權國家인 韓國과 世界輿論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自명한 理由가 아닌가 北韓이 UN總會의 勸告를 거부하는限 UN의 對韓決議案은 實効를 건울 수 없는 것이며 實사 北韓이 무슨 理由로써던지 UN의 勸告를 受諾한다도 해도 南北韓이 30年間 쌓은 相互異質性때문에 統一의 前提行爲인 文化的 經濟的交流가 果然 圓滿히 進行될 것인가 또 統一의 最終的段階의 南北韓總選舉에서 土着人口比例에 기초한 自由선거가 圓滿히 수행되고 南北統一이 또 이루어질 것인가가 솔직히 말해서 大端히 不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可想할 수 있는 諸條件 때문에 國家統一을 斷念할 수는 없기 때문에 漸進的인 方法으로 하나하나 着實히 또 現實的으로 조심스럽게 解決한다는 넓은 視野에서 南北間의 善意의 競爭과 武力使用 포기를 提案하는 8.15 宣言을 하게 되었다. 平和的統一에

대해서 分明히 先手를 써서 進一步의構想에 틀림없는 宣言이라고 할 수 있다. 그後 8.15 構想을 土台로 해서 赤十字社等 南北對話가 始作되고 74 共同宣言으로 南北統一에 對한 平和的對話의 決定的段階에 突入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모든 歷史的由來의 當爲性 그리고 이것을 民族의良心 앞에 호소하고 또 一面 冷靜히 그 現實과 行方을 把握하고 나아가서는 國際情勢의 正確한 判斷을 얻으므로써 段階的平和統一의 構想을 定立한 것이다.

1970年 8.15 宣言은 分明히 南北統一에 對한 將來의 方法과 그 理論的根拠를 明白히 했기 때문에 眞實로 統一을 願한다면 現實로 實現可能性을 包含한 具體的方案이 明示되어야지 그 理論的當爲性의 되풀이 主張만으로는 統一問題는 하나도 實質적으로 進歩가 없고 次元높은 政治的術手에서만 오락가락할 우려조차 있으므로 確固한 決意表明과 또다시 民族앞에 取消할 수 없는 8.15 宣言이 案出되었다고 해야 한다. 勿論 宣言이란 具體的實踐을 위한 前進的姿勢가 必要하다. 具體的實踐을 위한 制度確立과 相對方이 一旦 받아들이고 應해울 수 있을 것을 期待하는 一大 變化가 必要하다. 制度確立과 統一을 위한 變化는 一時에 斷行되는 것은 아니지만 統一이란 大前提에는 勇敢하게 前進할 수 있는 體制와 國民總協力이 先行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體制의 設定 또는 國民總和라는 美名下에 國民의 自由權이 滅失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統一은 共產化統一을 願하는 것이 아니고 國民의 自由意思에 選拔

權을 一任하는 民主主義가 內包되는 統一形態를 우리가 바라기 때
문에 共產主義의 特色인 獨裁 또는 人權保障의 無意味가 우리에게
萬一이라도 橫行한다면 統一은 無意味할 뿐더러 共產側이 바라는
統一이 될바에야 차라리 現狀固守가 더큰 將來의 統一을 生覺할때
비람적하다고 生覺할 수도 있을 것이다.

勿論 8.15 宣言은 平和的統一을 主張하고 統一을 達成하기 위한
戰爭은 있을 수 없다고 했으며 統一努力을 實際로 内外에 천명하
고 行動으로 實証하자고 했으며 段階的 方法으로 相互不信과 장벽
을 除去하고 民主主義와 共產主義實現의 善惡의 競争을 하고 어느
쪽 體制가 더욱 우수하고 合當한 體制인가를 國民앞에 提示하며
國民의 自由意思에 選擇權을 一任하자는 것이니 人道主義적으로나
政治적으로나 또 統一을 바라는 사람이면 누구나 納得할 수 있는
妥當한 方法이며 世界與論도 여기에 하나도 異論을 달 수 없고
共產主義 國家陣營에서조차 贊成하게 된것은 不滅의 大真理앞에서는
사소한 權謀가 無意味하다는 것을 實証해 주는 것이다.

平和統一은 一方에 의한 他方の 征服이나 一方의 原則을 他方に
強要하는 論理로는 實現될 수 없는 것이니 따라서 우리는 平和統
一到에 대한 우리의 立場을 制度化하고 漸進적이고 段階적으로 統一
을 實現한다는 方針을 재천명하게 되었다. 現在의 南北韓은 事實
上 理論과 體制가 너무나 相異하고 더구나 軍備對立으로 緊張狀態
가 繼續되고 있기 때문에 政治的統一은 當場에 不可能하므로 同質
性を 回復하기 위해서 異質性解消 또는 理解에 時間的餘裕를 주고

平等한 交流로써 分明히 同一民族元來의 同質性은 容易하게 回復한
다는 것을 確信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北韓은
이와같은 우리側의 統一接近方法이 適應할 수 있는 体制的準備가
없을 뿐더러 武力統一을 目標로 하고 全國家兵營化의 閉鎖体制요
戰時体制이기 때문에 南北統一도 赤化統一目的에 부합하지 않는限
對話가 이루어지지 않는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北韓은 모든것을
共產化란 一大政治色彩로 統治해 왔기 때문에 平和統一方法은 곧
北韓体制와 統治理想을 根本적으로 抹殺하므로써 現指導層의 後退를
곧 意味하므로 統治를 強化하기 위해서도 國民의 関心과 緊張은
婦一시키는 南韓의 憎惡心에 焦點을 맞출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2年間에 걸친 北韓과의 모든 對話를 집중히 分析檢討한
결과 참으로 統一을 바라는 國民의 意思表示로써 환경의 변경으로
써 北韓의 一貫된 우직성을 是正하고 統一에의 接近이 困難하다고
判斷하여 現實에 적합한 平和統一方法을 進一步한 高次的立場에서
宣言한것이 또 6.23 宣言이었다는 것은 政治技術이나 世界平和維持
로나 또 統一의 具体化立案의 当然한 例示로써 훌륭한 것이었으며
國內外로 그 妥當性を 認定받고 北韓에 대한 無言의 壓力이 漸次
적으로 가해지는 것은 또 論理의 自然的귀결이라 하겠다.

平和的統一을 또한번 世界에 천명했고 統一이 成就될때까지 過度
的方法으로 南北韓이 同時에 U N에 加入하고 U N 憲章体制下에서
相互不侵略狀態를 公示하고 南北韓의 体制差異는 民族史的正統性에
立脚해서 서로 克服하고 民族的同質性을 回復하기 위해서 統一條件

의 實質的 改善을 위하여 서로 努力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容易한 可能한 問題부터 南北間에 解決하자고 하였으며 이 모든것을 立証하기 위해서 互惠平等原則 아래 理念과 體制를 달리 하는 즉 共產國家와도 門戶開放政策을 挾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6.23 宣言은 前記한 8.15 宣言의 擴大具體化 그리고 統一을 갈망하는 南韓의 總意를 端的으로 明示한 것이었다.

平和統一의 構想이 前記한 바와 같이 合理的이고 現實에 부합하고 世界情勢의 國際平和維持의 協力에 適合수법되고 結局에 가서 國民의 自由意思에 따라 民族自決原則을 主体的으로 決定한다고 提示해도 共產側은 現實的인 問題는 度外視하고 反對하기 위한 反對理論으로써 終시一貫해 왔다.

平和統一의 構想은 許多한 難關을 豫想하고 우리의 多少의 犠牲을 각오하면서도 民族統合 南北統一이란 大民族使命앞에 堅決히 또 躊躇不決하게 方針을 提示해도 反應이 없음은 北韓은 共產化만이 統一이라는 理論 共產化만이 國際政治라는 理論 共產化만이 理想鄉의 建設이란 妄想만 되풀이 하나 이런 妄想은 分明히 언젠가는 世界正義앞에 解決될것이니 統一의 길이 비록 험난하다고 해도 이 大方針을 固守할 筈밖에는 生覺할 길이 없고 統一을 平和的으로 達成하기 위해서는 이 方針을 더욱 具體化시켜서 國民總意로써 추진할 筈 以外에는 生覺할 수 없으며 이 方針의 포기는 즉 平和統一의 自進포기로 밖에 生覺할 수 없다.

8.15 宣言 6.23 宣言을 더욱 擴大具體化해서 우리는 相互不可侵 協定을 締結하자는 것과 南北間에 더욱 門戶를 開放하여 서로 理解하고 誤解를 풀자는 것이다. 公正한 選舉管理를 通해서 土着人口比例로 自由選舉를 實施하자고 또 提示했다. 그러나 北韓은 合

法的理由없이 南韓이 統一을 기피하려고한 方針만 明示한다고 民族會議 美軍撤収 UN 單一加入 등 實現不可能 또는 순수한 內政干涉의 方法을 提示하고 時間을 얻어 國內体制의 戰時化에 邁進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의 平和的統一의 構想은 또 UN을 통한 統一에의 接近도 試圖하고 있다. 즉 世界平和産室이요 世界政治의 全部인 UN에 對해서도 우리는 중시일관 統一에 대한 우리들의 構想은 實現하는 不斷의 努力을 傾注해 왔다. 그러나 北韓은 南北韓UN 同時加入은 永久分斷이라고 하고 UN기구에는 韓國과 同時加入을 하고 또 同時加入을 더욱 實現시키기 위해서 努力하고 있으면서도 南北韓 同時加入만은 反對하고 策略만을 위한 策略을 전개하고 있다. 이 모든것이 北韓의 閉鎖性 共產主義에 또 다른 主張과 思想이 있다는 事實을 度外視해야만 單一思想 唯一思想의 高擡에 便利하고 國民을 간단히 힘으로 統治할 수 있다고 믿으며 平和統一은 韓國의 平和統一이 民族分斷의 代名詞라고 하고 共產化統一만이 正當하다고 主張한 共產側의 策動이 露骨化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平和統一理論은 是正 또는 中止할 수 없음은 現在로서는 分明한 事實이다. UN은 憲章에 규정된 義務를 수락하고 UN에 의하여 義務를 수행할 能力과 意思가 있다고 인정되면 平和愛好國家에 加入의 機會가 부여되어 있다. 이런 意味에서 심중히 生覺할때 南北韓 同時加入이 雙方間의 合法的國家承認이나 分斷永久化라고 할 수 없다. UN加入 國家끼리 統合 또는 聯邦制構成도 UN은 禁止하고 있지 않다. 統韓되면 UN代表權의 單一化는 自然히 解決되고 聯邦制의 單一加入이란 우리 現實로서는 事實 無意味하고 또 實現不可能하며 同時加入은 分斷永久化란 高집은 國際關係의 現實을 의면한 역설에 불과한 것이다. 南北韓의 UN 同時加入은 北韓의 主張

과는 反對로 韓半島緊張緩和의 國際的與件을 一層 빨리 造成시켜 平和的統一을 더욱 促進시킬 것이다. 分斷國家共通理論에서 考察해 보아도 南北韓同時加入은 緊張緩和機能을 수행하는것은 現實로 보아 分명한 일이므로 이것을 反對하는것은 分明明히 다른 政治的底意에서 出發한다고 하겠다. 分斷國家는 原則的으로 分斷地域雙方이 다 같이 一方的으로 國家正統性을 主張하고 源泉國家主權의 存在를 主張한 것이 普通이다. 그런 意味에서도 U N同時加入이 實現되면 相對方의 法的 正式承認問題는 고사하고 國際的正統性競爭이 緩和되고 緊張要因이 多少라도 除去되며 相互交流와 協力の 國際的與件이 조성되게 될 것이다. 同時에 國際的側面에서 南北交流의 協力の 強化는 國內的側面에서 일어나는 交流와 相合致하게 되며 祖國의 平和統一을 促進하는 實質的인 또 하나의 方法이 될것임은 勿論이다.

分斷國의 共通原則으로 보나 우리 南北韓統一의 原則으로 보나 平和的統一의 構想과 哲學은 實質的으로 理論的으로 또 國內的으로 國際的으로 上記한바와 같은 모든 要件에 根柢를 두고 있으며 平和統一은 變更할 수 없는 一大進路이나 그러니 힘을 背景으로 하는 平和維持가 아직은 國際社會의 大多數를 支配하는 現實이 原則이기는 하다. 그러니 이것은 國際正義를 實現하기 위한 完全體制의 未備로 一時的인 現象임은 틀림없다. 유토피아의 政治環境의 造成은 事實 不可能하나 平和를 志向하는 過程에서 일어나는 軍備 擴張의 모순을 덜기위한 眞지한 努力이 또 一方에서 繼續되고 있으니 人類元來의 理想인 平和를 具現시키기 위해서 努力하는 것이 原則이고 우리 祖國의 分斷을 統一시키기 위해서 大政治理想인 平和的方法에 의한 構想은 우리가 堅持해야 할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斷言하고 싶다.

二. 他分断国家의 統一問題

우리 韓國의 分断과 他国家의 分断을 比較해볼때 그 原因이나 類型에는 多少의 差異가 發見되나 根本적으로 分断의 悲劇은 旧帝國主義政治의 副産物이요 또 戰爭의 結果라고 할수 있다. 強大國主義가 直接 間接 世界國際政治에 影響력을 미치는 現象이 持續되는 限 또 兩思想의 對立이 解消되지 않는 以上 分断國의 出現은 不可避하다. 政治統治가 自己信念의 具現으로 國家를 通해 施行됨으로 思想對立이 繼續되는 限 一國家의 分断이든 또 國家群의 分断이든 多數國家의 勢力을 中心으로한 對立이든 分断이란 型態은 容易하게 解消되지 않는다. 分断의 類型은 內國의 原因에서 分断되어 漸次 國際的 紛爭으로 擴大되어 가는것이 있고 國際的 原因으로 分断되어 순수한 國內政治的 問題로 發展해 가는것도 있고 國際的 問題와 國內的 問題가 同時에 混合되어 國際的 關心事가 되고있는 混合型도 있다.

獨逸과 韓國은 國民들의 意思와는 關係없이 強大國들이나 戰勝國들의 利害關係에 따라 他意에 의해 分断이 強要된 例이다. 中共和 台灣은 內部的 原因으로 分断되어 오히려 國際的 關心事로 變換 例이다. 越南과 越盟의 경우는 國內的 理由와 國際的 理由가 거의 同時에 作用해서 分断된 混合型이라 할 수 있다.

위와같은 分断國들은 主로 思想的 對立으로 分断되어 있으며 分断國 相互間에는 共產主義優勢 自由民主主義優勢 相互勢力 同等으로 類型化되어 있는것이 現狀이나 統一을 實現한 分断國은 하나도 없으

며 統一을 志向해서 戰爭手段을 적용하기도 하고 政治的 協商을 通해서 統合을 試圖한 나라도 있으나 和戰 어느쪽이든간에 國家統一을 이룩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는것은 國家分斷은 容易하나 統合은 不可能하다는 結論을 보게된다. 이不可能의 統一을 두고 可能的 統一을 實現하려고 하는데에 國家統一의 歷史的 人類의 宿題가 있으며 이것이 現代政治의 가장 큰 特色이라고 할수 있다.

또 分斷國相互間에 正統을 主張한 데에도 分斷國이 各自 全國民을 代表한다고 主張하여 利益을 같이하는 強大國들도 그렇게 支持하고 있는 例가 普通이다. 서로 相對方의 不法性을 主張하고 이것이 軍事的으로 對立하는 關係이다. 中共과 台灣 南北韓 越南越盟이 이 類型에 屬한다. 또하나 特別한 類型은 分斷國一方이 正統性 또는 唯一代表性을 主張한데 반해 다른 分斷國이 實際上 또는 法律上 두개의 統治單位의 存在 또는 國際法的 正常存在을 主張하는 경우도 있다.

東方政策以前의 東西獨關係가 여기에 屬한다. 東西獨은 分斷의 現實을 重要視하고 獨逸統一을 最終的 目標로 하고 있으나 두개의 獨逸國存在을 默示的으로 서로 承認하고 하나의 民族에 兩國의 存在을 認定한다는 現實主義로 轉換했다.

國家統一에 대해서는 어느類型이 더욱 便利하고 合理的인지는 速斷할수 없으나 相互正當性을 主張하면서 對立하는것 보다는 一但 統治單位의 存在라는 現實을 土臺로해서 相對方과 同等한 地位인 正 각각 法律的 獨立性을 용인하고 基本條約의 締結 國境線의 認

定 國際기구에 同時平等加入이 더욱 平和的統一에 近距離를 보여준
다고 하는것이 더욱 理解가 가는 方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分斷이
獨逸의 分斷과는 相異한 點이 있으나 統一의 具體化 方法에서는
政策樹立에 큰 參考를 할 必要가 있다.

代表的 分斷國의 統一問題를 研究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獨逸의 統一問題

獨逸은 世界分斷國家中 가장 特殊性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다.
分斷된 東西獨이 特別한 軍事的 對立없이 可能的 接觸을 維持해
왔으며 이미 國家的 次元에서 基本條約을 締結하고 UN에 同時加
入하고 있는 狀態이다. 西獨은 유럽共同體의 核心國家로서 經濟力
을 背景으로 東方政策을 能動的으로 推進한 다고 現狀을 土台로한
外交政策을 樹立하고 있다.

獨逸統一에 對해서도 武力統一이란 不可能한 非現實的인 方法은
生覺하지 않고 長期的인 獨逸民族統一을 構想하고 平和를 定着시키
는 方法을 擇하고 있다. 東獨도 共產黨의 長期執權에 依한 政治
的 安定과 經濟的安定을 바탕으로 해서 餘裕있는 接觸政策을 施行
해 왔다.

政治的 側面에서 美國이 西獨의 對蘇平和政策과 蘇聯의 東유럽
支配權에서 安結點을 모색해 왔고 軍事的 側面에서는 美國의 駐歐
軍의 漸次的 減縮과 蘇聯의 歐羅巴 平和共存政策으로 美蘇는 容易
하게 獨逸問題를 處理할수 있었다. 勿論 약간의 東西對立으로 東

西獨間의 緊張이 造成될 때도 있었으나 大體적으로 東西獨間에 人的 物的 交流가 合理的으로 이루어지므로써 他分斷國家內에서 보여준 것 과 같은 熱戰과 相互緊張은 없었다고 할 수 있었다. 1945年 8月 포스담協定은 獨逸을 單一經濟國으로 規定하였으며 東西獨 兩政府가 樹立된 後에도 物資交易이 持續되고 따라서 社會的 人道的 交流나 接觸이 實現되고 東西間의 段階的 接近을 現實적으로 實現시킨 結果가 되어 1970年의 政治的接近을 順調롭게 한 原因이 되었다. 이政治的 接近은 極히 初步的 段階라고 할 수 있으나 平和를 土臺로한 將來의 統一에 對해서 長時間이 要할지 모르나 對決보다는 妥協으로 한 國際社會의 基本潮流에 合당한 統一方法의 具現에 希冀을 걸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東獨의 統一政策은 上記한 政策과는 다소 差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1965年까지 「接觸을 통한 東獨變化論」에 立脚한 平和統一政策으로 轉換하고 西獨의 東方政策에 따라 「事實上的 東獨承認」 「規制된 共存概念」에 따라 相對적으로 事實上 西獨承認으로 轉換하게 되었다. 그後 西獨의 獨蘇不可侵條約을 締結하고 統獨의 國際的 與件을 造成하고 戰爭再發禁止와 東獨相互間에 內政不干渉에 立脚한 基本條約을 締結하고 單一民族의 두國家라는 事實을 그대로 容認하는 方法을 擇하게 되었다.

統一을 實現하기 위한 將來의 立場을 미리 考慮해서 東西獨分斷을 잠정적으로 固定化시키고 東西獨分斷의 永久化를 防止하기 위하여 東獨을 承認하면서도 國際法的 承認을 反對하고 東西獨關係를

國際法上 兩國家로 보지 않고 特殊關係라고만 規定하고 있다 .

勿論 이런 政策이 兩獨의 分斷을 事實上 永久化한다고 보는 意見도 없는것은 아니나 武力에 依한 統合이 不可能하고 또 不合理한 以上 改善的으로 可能한 現實方法은 이 方法밖에 없다는 極히 科學的인 方法이며 現實을 土臺로한 相互合意에서 이루어진 方法이기 때문에 統一보다 앞서야 할 平和維持 相互繁榮이란 政治的 目的을 達成할수 있는 開放的 方法을 擇하고 있는 것이다 .

東西獨 分斷現實을 認定하고 相互交流擴大에 依한 接近方法이 段階的 統一의 實現에 있고 相互共存 文化交流 (經濟交流로) 統合의 基礎를 形成한 後에 「政權統合」으로 統一을 實現할수 있다는 것이다 . 「國家聯合」案에 立脚하여 國際法的 東西獨 同格化를 主張하는 東獨의 統一方法과 交流擴大을 土臺로 해서 東獨社會變質을 企圖하고 統一의 꿈을 이룩하려는 西獨과의 方法에는 概念上 差異가 있으나 實은 平和定着 相互交流도 同等한 立場에서의 統合이란 共通點을 發見할수 있으며 이것이 東西獨 統一問題의 特色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基本條約은 既存軍事體制에 對해서는 相互 防害하지 않고 있다 . 이것은 關係國과 周邇國家의 利害關係를 考慮하고 平和가 定着되면 軍事秩序는 오늘날 國際社會에서 重大한 問題가 아니라는 前提下에서 이루어졌다는 特色을 또 보여주고 있다 .

西獨은 基本條約이 東西獨의 現狀을 事實上 認定하고 段階的交流을 實現시킬수 있다는 點에서 自身の 統一政策原則이 貫徹되었다고

生覺하며 東獨은 基本條約을 國際法的 條約締結로 보기 때문에 東西獨의 完全同格化로 國家聯合이란 型態로서 統一原則이 貫徹되었다고 보고있다.

韓國分斷과 比較할때 그分斷原因은 相互 同一하면서도 現實적으로 判異한 狀態에 있고 統一의 接近을 初步的 段階에서 조화 實現하지 못하고 있음은 北韓의 統一에 對한 一方的 解釋이고 共產革命을 容易하게 達成할수 있으며 決定的時期에 南韓人民이 烽起한다는 妄想 때문이다.

既存政治秩序를 大局的 見地에서 事實대로 容認하고 現實을 土台로 해서 可能한 統一方法을 願한다면 東西獨의 接近方法을 그대로 適用할수 있다고 본다.

相互不可侵協定으로 平和를 固定化하고 事實上 同格으로 相互承認下에 相互交流를 이룩한다는 東西獨接近方法이 韓國의 分斷에도 그대로 適用된 다면 獨逸式 統一構想이 理想的의型으로 또 實現可能型으로 등장 할것은 明白한 일이다.

다만 韓國分斷과 獨逸分斷을 比較해볼때 周邊強大國의 利害關係가 더욱 銳利하게 對立하고 있는것은 事實이다. 韓國의 實情이 國內的으로 經濟的으로 또 地政學的으로 東西獨과는 差異가 있으나 基本的 分斷現實은 同一하기 때문에 統一原則이나 接近方法도 同一한 要素에서 達成할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獨逸의 統一方式을 그대로 適用할 수 있다.

勿論 前提條件은 北韓이 唯一的 獨善을 버리고 開放的으로 平和共

存이란 現實을 土台로해서 共産哲學을 現代國際政治의 妥協의 水準
까지 接近시켜 수면 韓國統一은 歐羅巴의 社會와 差異가 있다고
하더라도 段階的 方法으로 成就된다고 본다.

周邊 4 大國은 全體的으로 分斷의 現狀維持를 바라고 있다. 社會
正義에 立脚해서 分斷國의 原狀回復 즉 國家統一은 主權平等의 思
想을 基礎로해서 볼때 當然한 귀결이라고 主張은 하지만 現實的
利害關係때문에 現狀을 바라는것이 事實이며 分斷現實이 더욱 自國
의 利益追求에 便利하기 때문이다.

獨逸分斷은 그런 意味에서 周邊強大國의 關心事이나 獨逸의 統一
이 將次 유럽 勢力變化에 決定的 影響을 주기 때문에 分斷을 바
라고 있으나 分斷이란 現實도 또 關係國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기
때문에 分斷狀態이나 統合을 前提로한 同格下의 併立體制를 바라고
있다.

韓國의 立場과 이런 점은 비슷하나 北韓 共産化의 內部的 變質을
이르키는 方法은 美蘇 中共의 平和共存理念과 和解政策이 成熟해질
때 自然的으로 이루어진다. 同時에 南韓의 社會的 發展과 國際地
位의 向上은 이런 北韓의 自由化變質에 加一層 促進시킬 것이기 때
문에 原則적으로 獨逸의 段階的 統一方法을 固守하고 國內의 充實
이란 基本的인 理論을 應用할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越南의 統一問題

越南의 分斷은 韓國 獨逸의 分斷과는 相異한 점이 있다.

韓國 獨逸이 二次世界大戰의 戰勝國의 意思에 따라 他意로 分斷된 代에 比해서 越南의 分斷은 二次世界大戰後 仏蘭西의 植民地統治에 反對하는 民族自決主義的 原住民의 鬪爭에서 야기된 事態를 收拾하기 위한 關係國의 國際會議에서 當事者들의 合意下에 이루어진 分斷이며 그後 思想的統治對立이 原因이 되어 戰鬪가 繼續되고 現在로써는 統一에 대한 構想과 方法을 整理할수 없는것이 越南分斷의 特色이다.

1954年 5月7日 「디엔비엔푸」戰鬪에서 仏蘭西의 敗戰을 原因으로 해서 反戰機運이 增大되고 1954年 7月 20日 休戰協定の 成立으로 印支戰이 終結되었다. 越南戰解消의 基礎가된 「제네바協定」이 越南統一의 政治的 基礎가 된다.

「제네바協定」은 北緯 17度線은 어디까지나 暫定的인 軍事境界線으로써 政治的 領土의 境界를 設定한 것은 아니며 越南의 總選舉는 本協定에 의한 國際監視委員團의 監視와 管理下에 1956年 7월에 實施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越南의 統一을 實現시킬수 있었던 總選舉는 印支事態가 植民地 解放戰이나 思想的 對立의 次元을 넘어 東西冷戰體制의 對立으로 實施못하였다. 傳統的 植民政策에 批判的 態度를 取하여온 美國은 越南事態의 變化에 따라 「제네바協定」 締結直後인 1954年 9月 8日 東南亞條約機構의 창설과 더불어 越南政權에 대한 軍事經濟協助를 始作하였고 軍事顧問團을 派遣하여 越南軍의 強化를 企圖했고 이런 事實은 反射的으로 越盟을 자극하여 軍事的 思想的對立을 激化

시키고 이와같은 情勢變化의 背景 밑에서 越南은 自由選舉가 實施될 수 없다는 理由로 「제네바 協定」에 規定한 南北統一選舉를 拒否하므로써 分斷은 漸次 固定化되어가고 韓國의 38線과 같이 越南의 17線도 同一한 性格을 띠게 되었다.

越盟은 越南戰遂行過程에서 數次 越南에 樹立될 새로운 政權과의 平和的 協商을 통해 統一을 實現시킨다고 標榜했다. 또 越南戰은 共產側의 軍事的 劣勢속에서 越南人民을 장악하고 越南의 赤化統一을 企圖한다는 統一戰略과 共產革命을 一致시키므로써 窮極的統一을 期한다는 方針을 取했다. 이런 方針을 더 具體的으로 說明하자면 美國과 軍事的으로 勝利할수 없으므로 非軍事的인 面에서 즉 外交 協商 心理戰 등으로 美國을 逐出시키고 越南의 政治的 混亂을 造成하고 民族勢力을 包摂하여 共產主義的 統一勢力을 擴大하고 越南政府와 베트남의 對內外的 同格化를 實現시키고 最終的으로 完全赤化로 南北統一을 實現시킨다는 基本構想에서 出發하고 있다.

이러한 共產側의 一方的構想은 韓國統一에 대한 北韓의 方法과 同一한 點이 많다. 同一한 教理에서 出發한 共產革命信仰者들은 相對方의 內部的 混亂이 共產主義宣傳으로 可能하다고 보기 때문에 軍事力의 強化 內部烽起의 期待에 全的으로 依持한 政策을 擇하고 있으며 特히 宣傳이 共產組織의 基本이라는 方針을 固守하고 宣傳으로 始終一貫하는 方法을 擇하고 共產主義 宣傳은 결국 相對方의 現位置를 抹殺하는데 王力을 하기 때문에 獨善的이고 非協力的이고 極히 一方的인 態度를 取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統一問題를

生覺할때 相對方의 이러한 基本構想을 是正시키고 可能하면 打破하는 事前準備와 自体体制의 確立이 先行되어야 한다. 이러한 準備와 國家体制의 確立이 없이 統一問題의 計劃樹立은 無意味하고 共產主義者들을 相對로한 統一論議는 無意味한 것이 된다.

越南의 共產側은 1969年 6月 8日 越南臨時革命政府를 樹立하고 美國과 사이공政府를 打倒하여 民族主義聯合政府를 樹立하고 平和 中立外交의 遂行과 더불어 南北關係의 正常化와 平和的 再統一을 期한다는 宣傳아래 共產主義 擴大를 기한다는 統一戰線論의 偽裝 戰術을 쓰고 있음도 北韓의 主張과 一脈相通하는 術策을 擇하고 있다는 것을 봉이하게 알수 있다. 1968年 5月以來 다시 平和 協商은 空轉을 거듭하다가 最終적으로 美國 越盟間의 秘密交涉이 結実을 보아 1973年 1月 28日 越南平和協定이 調印되었으나 이것은 越南內戰爭의 終來에 直接的 意義가 있고 統一에대한 豫見이 없는것은 아니나 統一의 實現은 現在로서는 不可能하고 오히려 共產化우려가 있다는 것이 事實이고 보면 北韓의 統一偽裝戰略과 時間的 餘裕를 얻어 戰爭南侵準備를 完成한다는 北韓의 實情을 파악할때 우리의 合理的 統一論의 主張과 더불어 이 統一論 實踐不可能의 時機도 考慮해서 南侵에 實力으로 對決하는 準備体制의 完成과 國民의 깊은 協力を 促求하는 弘報活動 教育의 徹底 國民總力達成体制의 完成등이 急先務일뿐 아니라 이것만이 統一을 바라보는 唯一한 方法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自명한 理致일 것이다.

美國의 立場은 共產側의 主張을 一部 受諾하고 또 受諾한듯한

印象을 주는部分이 빠리 越南協定文에 많이 發見되는것은 事實이며 이것은 베트남을 越南政治秩序속에 吸收하려는 巨視的 戰略이다. 美國과 越南은 1954年 제네바協定에 따른 17度軍事境界線의 回復을 主張하고 南侵한 共產軍의 撤収를 要求하여 왔으나 事實上 越南平和協定은 越南의 軍事的 連結을 不得已 受諾하고 胡루트의 封鎖가 現實化될 경우 베트남은 軍事的으로 無力化될 것이며 同時에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越南의 政治秩序에 合流될 것이라는 點을 잘 알고 있다. 越南内の 政治問題가 解決된 다음 越南은 統一問題를 南北越南의 自由選舉實施라는 새로운 課題가 提起될 것이며 이問題로 越南 統一問題는 또한번 國際的 政治問題로 등장될 것이다.

美國의 對外政策의 變化 特히 亞細亞에 대한 外交政策의 變化는 當然한 變化이다. 強大國主義의 非現實性和 美國國內問題의 複雜化와 軍事力에 依한 問題解決의 不可能과 共產國家의 強大化 및 新生 中立主義國家들의 存在-를 考慮해서 볼때 美國의 世界支配는 不可能하게 되었기 때문에 越南戰에서의 離脫을 바란다면 現實로서 共產主義와 協商하고 協商한다면 共產側主張을 受諾한다는 方法以外는 解決方法이 없다는것은 當然한 論리의 귀결이다. 우리 韓國의 統一問題와 比較해 볼때 現地的 事情과 軍事的 對決에 差異가 있는것도 事實이나 分斷된 共產主義國家와의 協商이란 同一한 類型의 外交交渉이고 보면 外交交渉上 일어나는 交渉技術에는 分明히 同一한 點이 일어날 것이며 이點을 우리가 깊이 生覺해야 할 問題이다. 越南平和協定은 戰爭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將次 일어나는 政

政治的 問題에 많은 양보를 한點이다. 共產側의 軍事力 存在을 고려해서 政治的 양보를한 極히 利害打算的인 外交交渉을 보여준 例이다.

우리 統一問題에서도 共產側이 戰爭準備를 통한 軍事力優位 南侵으로 神經戰 南韓의 團結破滅로 政治 協商에서의 優位를 占有한다는 基本哲學에는 變함이 없으므로 우리 韓國은 이點을 充分히 간파해서 南北 統一問題는 事實 어렵고 험난한 길을 걸어야하고 어느 程度 양보가 부수되지 않고서는 解決이 안될 問題이니 性急히 서 들일이 아니고 基本方針을 遂行하는 體制를 完備해야 한다.

將次 있을 南北 協商에서 外交技術上 양보해야 할點이 우리 側에 不利한 영 향을 주는일이 없도록 미리 豫見해야 한다. 越南은 共 産化될 可能性을 排除할수가 없다. 越南 國內에 共產軍事力이 凍結 形態이지만 現存하고 周邊國家가 共產化될 可能性도 있고 越南의 政治現狀이 지극히 不安定하고 보면 越南의 政治秩序에 共產勢力이 強하게 侵透하고 이侵透가 原因이 되어서 共產化란 悲劇을 招來할 수도 있다는 事實을 우리는 他山之石으로만 보지말고 越南事態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天賦의 좋은 試煉과 例를 보여준다고 받아들여 우리 統一問題解決에는 越南統一問題의 進展에 깊이 関心을 기울려야 한다고 確信한다.

3. 中共의 統一問題

中國의 統一問題는 獨逸 越南 韓國과는 全然다른 角度에서

연구해야 한다. 第2次世界大戰이 中国分斷의 原因이 되었음도 事實이지만 第2次大戰後의 戰勝國의 一方的 要求나 그後의 國際會議의 合意에서 이루어진 分斷國 樣相과는 다르다는 點이다. 2次世界大戰 以前의 中国의 國共合作의 成立과 決裂의 具體的 過程은 極히 複雜하고 長時日에 걸친 것이었으나 基本的 原因은 國民黨의 民族主義와 共產黨의 國際共產主義 革命과의 主導權爭奪戰때문이 컸다. 共產主義의 原理인 革命이 不變의 共產主義目標일때 中国共產黨도 國共合作은 結局 最終의 政權과 中国本土의 全赤化의 計劃的 政策이었으며 이 政策을 成功的으로 達成하기 위한 時間的 餘裕를 얻기위한 方法이었다는 點이 分明히 들어났다. 中国共產黨은 1921年 創立以來 1949年 中国本土 掌握에 成功할때까지 無수한 曲折을 거듭하여왔다. 現在 中国分斷이란 말이 必要없을 程度로 國際政治는 對中共一色이고 台灣은 名實共히 中共의 領土化되여가고 있다. 國際協商이나 國共間의 協商을 通해서 中国統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內部的 政治形態로써 自然的으로 統一되여가는 것 같은 現實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 點에서도 他分斷國家와는 相異한 樣相을 보여주고 있다.

中国의 統一問題는 한때 유엔代表權 問題를 中心으로 兩個의 中国 觀이 爭論된바도 있었으며 原則적으로 하나의 中国觀이 國共相互間에 一貫되어 왔다.

國府는 1945年 8月 台灣을 日本으로부터 接收하였고 1949年 9月 中共의 本土 完全制壓에 따라 大陸反攻을 基本政策으로 하나의 中国觀을 堅持하였다. 그러나 現實的인 政治는 理想的인 政治口號를

초월해서 武力行使는 制限받고 本土收復은 事實上 不可能하고 不可能한 政治目標는 合理的인 政治目標가 될수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汎國民的 人士로 大陸光復에 關한 方案을 研究하고 있으나 이概念은 武力에 依한 收復은 不可能하고 現狀의 維持만에 滿足하든지 單純한 政治鬭爭 目標로서 中國本土의 內部的 情勢變化에 期待를 걸어본다는 지극히 막연한 立場에 서게 되어있다.

中共의 統一觀은 하나의 中國觀에 立脚하고 있으나 武力解放政策에서 平和解放으로 變化되고 統一이라기 보다는 政治的 現實을 土台로해서 國際政治의 壓力과 自體의 強大化로 台灣의 國府를 하나의 失地된 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自治區로해서 中立的 立場에서 現實로 이問題를 解決하려고 하는 構想도 漸次 擴大 또는 露骨化되어가고 있다.

이政策은 中共의 強大化 世界情勢의 變化 平和共存理論의 定着化 등 여러가지 理由로해서 中共의 一方的 主張이 그대로 信奉되고 中共의 一方的 解釋과 國府에 대한 一方的 政策이 그대로 容認되는 方向으로 法定的으로 變轉되어가고 있다. 中國은 반드시 中共을 指稱하는 것은 아니지만 美國은 中共과 台灣과의 關係는 兩者의 協商으로 解決한다고 하나 이것은 分明히 하나의 中國으로 기울어진 것이며 分斷國의 統一問題는 原則적으로 自力解決에 맡기되 實은 政治的 利害關係나 自國의 便利에 따라 決定되며 分斷國相互間의 立場은 第二問題가 된다는 強大國의 底意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現實을 土台로 할때 우리나라 統一問題도 이점을

充分히 고려해야 한다. 政治的 國際情勢와는 달리 台湾은 經濟的 面에서 重要的 位置를 維持하고 있다는 事實은 經濟的考慮에서 貿易關係로 重要視는 되나 政治的 統合과는 다른 問題이므로 中國의 統一過程에서 반드시 有利한 立場에서 統一을 期할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台湾의 經濟的發展을 中國의 統一問題와 關聯해서 檢討할 때 經濟的 發展이 統一을 위한 自由선거에서 有利한 立場에 서는 것은 사실이나 中共과 같이 強大한 土地人口 軍事力에 대해서 台湾의 經濟發展은 너무나 微微하다는 것을 例示해준다. 國防外交는 中共이 掌握하고 相互 相異한 政治體制를 維持하면서 宗主關係를 맺은 自治的 國家類型은 兩分斷國이 다 같이 受諾할수 없는 것이며 다만 世界에 默示的으로 承認되는 關係에서 事實上 中共의 領土라는 線에서 統一이라기 보다는 國家統合이라는 過程과 統合後 自治的 特殊區域이라는 點에서 事實上 中國統一이 實現될 것으로 본다.

4. 分斷國家의 共同類型과 그實情

分斷國의 類型은 原則적으로 두가지가 있다. 韓國과 北越 또는 越南과 같이 戰勝國의 利害關係가 原因이 되며 國民들의 希望과는 關係없이 他意에 依해서 分斷된 類型이다. 分斷은 다른理由로 이루어졌고 統合은 自力에 依해서 해야한다. 더구나 極端的인 思想의 對立과 軍事力의 對決속에서 統一을 해야한다는 것은 事實上 힘에 依한 一方的 征服以外는 協商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不可能에 가깝다. 強大國의 利害關係로 分斷되었으니 強大國에 依해서

이 分斷이 解決되는 것이 順理的이나 強大國의 利害關係가 더욱 複雜化해져가는 現實에서는 다시 말해서 強大國의 利害關係의 解決이 없이는 強大國의 利害關係가 存続 하는 以上 統一은 不可能하다. 獨逸과 韓國같이 戰後處理로서 이루어졌거나 또는 그後 兩國間의 思想的 對立으로 이루어졌거나 그 分斷의 時期가 問題가 아니고 分斷의 原因解消가 問題이다. 中國과 같이 國內的 理由로 分斷된 類型도 있고 越南과 같이 國際的 理由와 國內的 理由가 混合되어 分斷된 類型도 있다. 理由는 어디있거나간에 分斷이라는 政治的 現實을 土台로 볼때 分斷狀態로써 滿足한다면 모르되 領土擴張이란 基本的 欲求가 世界平和나 主權平等이란 理由때문에 追求되지 못하는 것이 事實이지만 失地回復은 當然한 國家的 權利에 屬한다.

分斷國의 統一은 當然한 政治行動이며 分斷의 時期나 理由에 불구하고 全世界國家의 共同努力으로 解決되어야 한다.

分斷國의 勢力을 보면 民主優勢型 共產優勢型 相互比等型이 있으나 戰爭에 의한 一方的抹殺로써 解決한다면 別問題이나 世界秩序의 維持속에 平和的協商을 通해 解決한다면 바람직한 일이며 當然히 合法的 國際기구를 通해 平和的으로 解決되어야 할 것이다.

關係國家가 統一을 追求하는것은 原則的인 이야기이고 分斷國當事者만큼 切實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統一은 分斷國 相互間의 熟望에 따라 自主的으로 解決의 실마리를 잡는것이 順理일 것이다.

分斷國의 統合이 어렵다는 理由는 바로 여기에 있다. 分斷國 相互間에 解決해야 하면서도 現代 國家는 그 利害關係가 國際的으

로 聯関性을 갖고 있으므로 自主的 立場과 國際的 立場이 同時에 合致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現分断國들이 戰爭이나 協商으로 統一된 例는 하나도 없다 . 유엔에서 解決된것도 하나도 없고 또 解決될 可能性이 構想된것도 하나도 없다 . 今世紀 最大의 政治的 課題이면서도 수수께끼의 하나가 바로 分断國의 實情이다 . 이런 實情속에서 正統性 또는 唯一合法性을 主張한例도 있고 法律上으로 두개의 統治單位 存在 또는 國際法的 國家性을 主張하는 例도있고 分断國이 어느地域에 대한 事實상의 統治는 그國家性 또는 合法的 權威性을 基正事實로 相互 受諾할수있는 충분한 理由를 받아들일수 있다는 立場을 취함으로써 相對方과 同等한 地位를 인정하자는 方法도 取할수 있다 . 이모든 方法이 將次 分断國 相互間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수 있을지 豫想하기 어려우나 原則적으로 平和統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相對方을 能가해서 優位와 더욱 平和的 國家라는 點을 國民으로부터 認定받기 위해서 더욱 平和構想을 튼튼히 해야할 必要가 있다 . 여기서 平和構想은 더욱 그 意義의 重大性을 發見할 수 있다 .

三. 南北統一을 위한 對 備

1. 南北統一을 위한 外交的 課題

南北韓의 順調로운 解決을 위해서는 当事國間에 解決할 수 있는 要素의 決定이 必要하지만 國際的인 協調를 얻은 것이 더욱 重要하다. 統一外交의 우리 外交中 經濟外交에 比할만큼 比重이 크다는 것은 바로 오늘의 內政은 全部가 國際關係와 直接 間接關係가 있다는 것을 端的으로 証明해 주고 있다. 韓國은 우선 平和를 定着시키고 不信을 解消하므로써 緊張을 緩和한 後 信賴를 回復하고 段階的인 交流로 인한 統一政策을 確立하고 있으므로 우선 戰爭可能性을 抑制하고 南北關係를 安定시키고 本格的인 統一努力을 시도해 볼 수 있는 外交에 全力을 기울여야 한다. 美國이나 日本外에도 傳統的 友好關係를 維持하고 韓國統一政策의 正當性을 認識하고 그 妥當性을 確信하여 우리를 支持해주는 것이 重要하다. 統一外交의 要請은 特히 美國과 日本에게 南北關係에 대한 우리의 立場을 納得시켜서 必要한 모든 同調와 支援을 아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其他 友邦國의 理解를 얻는데 있다. 平和統一을 順調롭게 進展시키기 위해서는 共產世界 特히 蘇聯과 中共이 韓半島의 情勢를 올바르게 理解하고 적어도 우리政策에 反對하지 않고 可能하면 積極的으로 支援을 해주게 하는 것도 併立的으로 努力해야 할 點이다. 蘇聯과 中共이 韓半島에 對하여 安定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美國과 日本이 이들 共產大國들과 安定에 對한 合意가 이루어지고

있는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이 時点에서 우리가 더욱 積極的으로 統一外交를 추진하고 周辺強大國의 意思와 政策이 一致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平和統一을 위한 南北對話가 始作되고 北韓의 國際進出을 보다 有利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우리의 統一政策이 北韓의 國際的孤立을 脫皮하게 만들고 北韓을 承認하는 나라수가 늘어났고 國際機構에 加入함으로써 많은 國際舞臺에 進出하게 된것이 事實이다. 이 모든 우리들의 外交政策과 統一外交의 努力이 緊張緩和 南北關係의 正常化에 도움이 되겠지만 또 同時에 이런 努力을 逆利用해서 挑戰이 一方的으로 加一層되는 수도 있으며 또 그러한 事例가 현실로써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는 同時에 여기에 對備하는 內的体制의 強化와 安保維持를 위한 積極外交政策의 實踐이 重要하다는 것은 再言할 必要조차 없는 일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가 危機意識을 가질 必要는 없고 우리 統一政策이 合理的이고 協商으로 解決하려고 하는 方法이라는 것을 國際적으로 認定받은 것이 또 重要하다. 우리의 統一外交가 單純히 北韓에게 이기는데 그치지 않고 南北關係를 合理的으로 이끌고 나가서 國際여론과 環境을 잘 조정해서 韓半島에서 緊張緩和 戰爭抑制는 주로 궁극적으로 民族의 悲願인 國土統一에 한발 더욱 가까이 接近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急先務일 것이다. 國內團結体制가 完成되고 着實히 經濟發展이 이루어지고 政治的安定이 지속되고 亜細亞平和가 유지될때 分斷의 悲劇이 그대로 存在하는 非合理를 世界여론과 國際正義에 호소하고 長時日이 걸릴지 모르는 國土統一을 外交布石으로 着實히 認識시키고 北韓에 自由化의

風潮가 서서히 침투되어 平和的統一에 應할 수 밖에 없다는 變化를 招來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 統一外交가 始終 能動的이고 臨機 應變的이면서도 平和와 自由를 土臺로 하고 있다는 點을 더욱 事實로써 보여줄때 우리의 外交의 課題는 漸次的으로 그 本來의 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고 生覺된다.

2. 10月維新體制와 統一을 위한 對備

10月維新은 勿論 國內體制를 總和體制로 整備하고 國際情勢에 能動的으로 對處하고 南北對話를 平和統一의 一步로 하고 民族의 宿願은 國土統一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當然한 方法의 表示이지 만, 北韓이 不斷히 武力侵略으로만 나올때 또 여기 武力에 對備하기 위한 國內總和의 길을 트고 國力培養을 加速化하려는 當面課業을 提示한 것이다. 오늘의 轉換期的狀況속에서 試鍊을 克服하고 民族主体性을 드높여 國運을 克服하기 위하여 歷史的固有의 傳統과 文化에 알맞는 韓國民主主義를 土着化시키고 國家發展을 促進시키고 民族中興에 이바지 할것을 또 目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國家生存權과 民族自決精神의 宣言이요 平和統一에 대한 民族의 意志表明이고 國家의 安定과 發展을 위한 自主意志의 宣揚이고 보면 世界平和에 대한 新秩序創造에 積極 參與하는 劇的 努力임에는 틀림없다.

10月維新은 分明히 過去의 統治觀念이나 憲法意識을 초월해서 平和統一精神은 憲法에 明文化하고 平和的統一과 不斷히 일어나는

北으로 부터의 挑戰에 同時에 對備할 수 있는 基礎의 精神的 產母라고 할 수 있다.

民族의 使命이 分明히 國土統一이라고 하면 維新秩序는 變명과 統一을 위한 새 秩序이고 道義와 協同 能率과 生産을 위한 새 秩序라고 明示한 大統領의 말씀대로 10月維新은 平和統一을 具體化하기 위한 國內體制의 發展이요 또 誤解로써 武力解放을 위한 戰爭準備를 서두르고 있는 北韓에 대한 實力表示라고 할 수 있다. 南北對話를 積極的으로 增進하고 民族主体勢力을 總集決하고 國際情勢를 能動的으로 우리에게 有利하게 作用할 수 있도록 爭取하며 內外的 要素를 하나로 變化시켜서 漸次的으로 統一을 위한 對備策임이 分明한 以上 이 實踐은 모든 國民의 理解를 追求하고 統一外交로 友邦國家뿐만 아니라 非敵性共產國家에도 平和統一을 認識시키기 위한 門戶를 開放하고 平和的 對話만을 통해서 平和共存의 哲學을 實踐해야 한다.

世界史를 통해볼때 主体性を 確立하고 努力한 民族은 隆盛하고 主体性を 상실한 民族은 分明히 滅亡했다. 오늘과 같이 內外的 試經이 거셀 때일수록 우리는 또다시 強大國主義의 祭物이 되는 길이 없도록 하는 한편 國家利益을 最大限으로 守護신장해 나가기 위해 民族主体性を 確立하고 民族的 矜持와 使命을 깊이 인식하고 民族進路를 스스로 開拓해 나가야 한다. 國際情勢의 變化에 對処하고 南北對話를 준비하고 內部態勢를 더욱 強化하고 一切의 不條理를 스스로 불식하는 것이 南北統一을 위한 直接的對備가 되는 것이다. 統一을 위한 對備는 더큰 視野에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健全하게 維持해야 한다.

3. 韓國統一政策의 確立과 實踐

韓國統一政策은 現實을 土臺로 해서 我國家利益을 最大限으로 保障해서 樹立된 것이다. 平和를 定着시키고 平和的方法으로 分斷을 解消하는 方法을 採하고 있다. 이 實踐에는 國內事情의 變化 또는 周邊國家 特別 強大國의 利害關係에 따라 流動的인 變化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이 變化나 流動性은 我國의 自主的 利益을 무시한 一方的 處理는 있을수도 없고 또 第二次世界大戰末期 때와 같은 政治事情은 아니다. 따라서 重要한것은 國家利益을 中心으로한 國民의 團結과 安定에서 오는 復興을 最大限으로 保障하는 我國의 努力과 國民性이 決定的인 作用을 한다는 것은 再言할 必要가 없다. 統一에는 自己의 主義主張을 相對方에 強要하지 않는 것에 合意함으로써 冷戰과 緊張의 對立狀態를 일단 解消하고 平和共存을 성립시키는 基本關係를 설정하는 協約을 체결해야 한다. 이 方法은 嚴然히 存在하는 두개의 統治秩序가 同時에 하나의 統治秩序로 統合되기는 힘에 의한 一方的 抹殺以外는 不可能하다는 事實을 土臺로 해서 案出되는 것이다. 理念과 體制는 달라도 限定된 交流는 可能하다는 立場을 取하고 이 立場은 體制上의 同質性을 回復하는 表面上 統一性을 充足시켜주지 않지만 民族의 同質性은 어느程度 充足시켜주고 이 充足이 발전해서 理念과 體制의 變化에 作用을 준다는 前提下에서 이루어지는 理論이다. 다시 말해서 理念과 體制는 統治型態를 결정하는 重要한 요소이나 民族의 原則的 同質性을 分斷하고 이 分斷의 狀態를 統一하려고 하는 努

力과 希求를 抹殺하지 못하고 歷史的 民族의 同質性은 努力과 行動으로 同一化된다는 經驗과 哲學에서 우리 의 段階的 接近의 統一政策이 確立된 것이다. 이 確立된 統一政策은 그런대로의 樹立精神을 살려서 實踐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賢明하다. 그러나 共產主義者들은 民族의 同質性이라는 人道的 歷史的 觀念보다 体制의 強要나 共產化란 政治目標 達成에는 모든 現實的 條件을 犧牲시키도 할 수 없다는 閉鎖的 方法을 挾하고 있다.

統一政策의 樹立과 그 實踐에서 야기되는 重要的 차이는 바로 이 觀念의 差異에 基因되는 것이며 北韓은 特히 好戰的 態度를 取하고 있다. 이 好戰的 態度를 取하면서 決定的時期에 南韓에서 人民의 烽起로 決定的 共產化勝利를 얻을 수 있다고 盲信하고 있다. 共產主義者의 이런 態度決定에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點을 스스로가 알 수 있게 하는 方法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共產主義內部에서 동요가 일어나기를 期待하기 보다는 外部的作用 즉 共產國家群의 陽性化 또는 國際平和의 認定이 重要하다. 그다음은 우리 韓國의 團結 復興 國際地位向上 빈틈없는 總和体制의 維持만이 共產側의 統一方法에 대한 우리側 의도를 理解하고 여기에 따라오게 하는 길이다.

四 . 結 論

韓國의 分斷과 他國의 分斷은 勿論 그 原因이나 時期나 對立狀態나 統一을 希求하는 程度에 相異한 點이 서로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分斷이란 非合理的인 狀態에서 統一하고 國家로써 原狀을 회복함으로써 發展하자는 意志에는 相互差異가 없다. 分斷의 悲劇을 克服하자는 마음에는 서로 差異가 없다.

原則적으로 他分斷國家와 分斷을 比較할 때 根本的으로는 差異가 없기 때문에 他國의 統一努力이 곧 우리의 統一努力에 合致되는 것이며 統一過程에서 方法과 協商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他國의 統一方法이 우리에게 큰 參考가 된다는 것을 強調하고 싶다. 獨逸의 國家統合精神과 方法을 깊이 注視할 必要가 있다. 그 統一方法이 가장 理想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平和를 定着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다음에 獨逸式 統一方法을 扶할 必要가 있다고 生覺한다.

北韓과의 關係에서 平和를 定着시키기 위해서 不可侵協定이 체결되고 周邊 4大強國의 保障만 된다면 美軍撤収 UN加入 相互軍備縮少 政治會談 總選舉方法은 決定的 固難한 問題가 아니다.

이 모든 政治協商을 통해서 窮極的統一이 달성될 때 실사 그 統一國家型態가 어떠한 것이던 간에 統一은 이루어 진다고 豫視할 수 있다. 萬一 平和定着의 先決條件은 反對하고 作연시킨다면 그것은 統一을 追求한척하고 共產統治를 固守하거나 南韓의 共產化

以外的 統一狀態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共產側의 真意라고 할 수 밖에 없다. 國際情勢는 原則的潮流에 反對하면서 北韓側은 北韓과 같은 共產化統一만이 真正한 統一이란 억지가 얼마나 無意味한가는 明白한 事實이기 때문이다. 이 明白한 事實을 우리가 銘心하고 우리의 統一政策을 信仰的으로 信奉하고 이 信奉의 生活化는 國民與論의 善導下에 國民安保體制위에 發生하는 安定을 中心으로 邁進하는 길 밖에 없다는 것을 더욱 強調하고 싶다.

